

‘도시 젠가’는 어떤 모습일까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은 지난 2018년부터 여성 관련 문화예술콘텐츠 지원을 발굴하고 작가 및 기획자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공모전을 열고 ‘Herstory 기획전시’를 진행해 왔다.

올해 열린 제4회 Herstory 기획전시 공모전에는 ‘젠가 : 집결지 위의 도시’와 ‘애도는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말과 눈빛과 호흡과 움직임’ 등 세 개의 전시들이 선정됐다. 재단은 오는 12월까지 재단 3층 광주여성전시관 허스토리(Herstory)에서 순차적으로 전시회를 진행한다.

먼저 김서라, 정유승, 최하얀 작가의 ‘젠가 : 집결지 위의 도시’전은 8월 19일까지 열린다.

세 명의 작가가 공동으로 작업한 ‘도시 젠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모습을 ‘젠가’ 구조로 형상화했다. 정교하게 쌓인 나무 블록에서 기둥을 하나씩 빼다 보면 결국 무너져버리는 보드게임 ‘젠가’에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차별 등을 빗대었다. 광주 내 성매매집결지를 조망하면서 여성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불법 성매매를 방관하는 불특정 다수를 비판한다.

또 최하얀 작가의 ‘City Light’는 성매매 집결지를 밝히는 빛이 밝고 아름답게 빛날수록 도시가 내재한 역설은 더욱 강화됨을 전하며, 정유승 작가의 ‘내온사인 아래에서 종이를 주웠다’는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형색색의 불법 성매매 전단지들을 모아 만든 작품이다.

다음 전시는 8월26일-10월14일까지 열리는 ‘애도는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다. 이하영이 기획하고 강수지, 김원경, 이서영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로 반복되는 여성혐오범죄와 성차별 사건, 기록되지 않은 여성들의 이야기에 애도를 표현하

광주여성가족재단 기획전... ‘젠가’ 8월19일까지 허스토리 8월 ‘애도는 어떻게...’, 10월 ‘말과 눈빛과 호흡과 움직임’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오는 8월 19일까지 재단 3층 광주여성전시관 허스토리에서 ‘젠가 : 집결지 위의 도시’전을 진행한다.

는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마지막 ‘말과 눈빛과 호흡과 움직임’전은 10월21일부터 12월9일까지 열린다. 박화연, 나지수 작가는 5·18 당시 시민군 기획실장으로 활동했던 고(故) 김명철 열사의 막내딸인 무용가 김

연우의 삶을 들여다보며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들을 시각화, 청각화 해 보여줄 계획이다.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gjwomenfamily) 참고. 문의 062-670-056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정연심 교수 강좌

13일 ‘미술관 아카데미’

광주시립미술관이 주최하는 ‘미술관 아카데미’ 4번째 강좌가 오는 13일 오후 3시-5시 미술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강의에서는 정연심(사진) 홍익대 예술학과 교수가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광주비엔날레 등을 통해 한국미술의 주류를 차지하게 된 현대미술의 흐름을 살펴 볼 수 있는 강좌로 이날 강의에서 정 교수는 서구 남성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환경, 인권, 여성 등 중심이 아닌 주변에 대한 주제로 제작된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미술관 홈페이지 신청. /김미은 기자 mekim@

배다인 ‘난 나쁜 친구야!’ 한국문학백년상 수상

화순 출신 배다인(사진) 동화작가가 ‘난 나쁜 친구야!’로 제14회 한국문학백년상을 수상했다.

한국문학백년상은 한국문인협회가 창작 활동에 전념하는 문인들의 문학적 업적을 포상하기 위해 부문 별 수상작을 선정한다. 배다인의 작품은 아동문학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동화 ‘난 나쁜 친구야!’는 친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사건을 그린 단편 동화집이다. 5편 동화에는 거짓말쟁이, 암체 같은 짝궁, 알미운 아이, 전학생 등 다양한 친구가 등장한다. 작가는 작품 속에 나쁜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이겨낼 힌트를 숨겨줬다.

배 작가는 조선대 대학원 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지금까지 ‘은골무’, ‘파도 너머 푸른 꿈’, ‘생각이 들리는 세계’ 등 작품집을 펴냈으며 광주전남아동문학인상을 수상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2일 오후 3시 30분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연 이야기’

정미희 초대전

11일까지 양림미술관



‘Lotus story’

화려하고 강한 색감, 단순한 모티프가 인상적인 서양화가 정미희 작가 초대전이 오는 11일까지 광주 양림미술관에서 열린다.

‘Lotus story (연(蓮)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코로나로 지친 이들에게 위안을 주는 ‘연’을 다채롭게 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매 전시마다 하나의 주제를 잡아 집중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정 작가가 이번에 선택한 ‘연’은 디지털 인체 스캐치와 혼합재료를 이용한 다채로운 색채감이 더해진 게 특징이다.

연꽃이 갖고 있는 고정화된 이미지 대신, 색채와 재료의 변화로 만들어진 화면의 자유로움이 인상적이며 전통적인 동양미와 모던아트를 접목해 색다른 느낌도 만들어낸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동양적인 것과 현대적이고 서구적인 것이 어우러질 때 완성된다는 작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정 작가는 “단순한 형태와 색채, 한국적인 오방색과 디지털적인 표현 방법으로 친숙하게 다가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한다.

정 작가는 개인전 21회, 국내외 초대전등 500여회의 전시와 아트페어에 참여했으며 독일, 스페인 등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현재 한국전업작가회, 광주미술작가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정 작가는 오는 8월 20일부터 서울아산병원 갤러리에서, 9월에는 휴광갤러리에서도 개인전을 개최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사라져가는 것들’

서영실 개인전 9~21일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사라진 풍경’

서양화가 서영실 작가는 쇠락해가는 도시의 풍경과 멸종 위기의 동물 등 ‘사라져가는 것들’을 다양한 평면과 입체 작품으로 묘사해 왔다. 없어지는 것들을 다시 화면에 복원해내는 그의 작업은 ‘생과 사의 순환’을 비추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다.

서영실 작가 개인전이 9일부터 21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열린다.

‘Time on the road’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도시의 사라지는 풍경과 현대사회와 문명의 이기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잠시 ‘멈춤’을 권하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작품에서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쇠락해가는 구도심의 모습과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을 만날 수 있으며 특히 그의 작품 안에 등장하는 전봇대는 소비되는 시간 속에 지중화되고 기억에서 멀어져 가는 도심 풍경의 한 단면이다.

한 걸, 한 걸 덧칠해진 물감을 깎아 내려가는 방식을 통해 숨겨진 다양한 색을 드러내는 작업 방식은 감춰진 색이 나타나고 감춰짐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싶은 작가의 의도를 담고 있다. 또 소멸되고 생성되는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설치-사운드 작품 ‘not caring’은 ‘소비되어버린 시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조선대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서 작가는 지금까지 4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오버랩 국제 레시던시(광주-필리핀) 등에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